

세월호 소식나눔

People in Solidarity with Families of Sewol Ferry

필라 세사모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필라델피아 사람들의 모임(필라 세사모)은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필라 지역 동포들의 모임입니다.

9월의 주요 활동

8월 27일(토) 노란우산 시위
아트뮤지엄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노란우산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8월 29일 ~ 9월 8일 릴레이 단식
416유가족협의회 '사생결단식'을 응원하기 위해 몇몇 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루씩 릴레이 동조단식을 진행했습니다.

9월 17일(토) "Change Ride" 참가
필라 지역 사회운동 단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필라델피아 시내 곳곳을 방문하는 "Change Ride"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 구호를 넣은 몸자보와 전단지 등을 통해 세월호 문제를 알렸습니다.

소식지와 기억물품을 계속 나눕니다.

- 9월 18일(일) 챌튼햄 H마트
- 9월 18일(일) 노스웨일즈 아씨마트
- 9월 24일(토) 어퍼다비 H마트
- 9월 25일(일) 체리힐 H마트



예은아빠 유경근씨의 단식 농성장 밖에서 피켓팅 중인 예은할머니(사진 : 뉴스앤조이)

유가족,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목숨 건 단식

지난 8월 17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예은아빠 유경근씨와 준형아빠 장훈씨를 시작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사생결단식(사생결단을 내기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강제종료 시킨 데 대해, 특조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소야대 국회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상당수 유가족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특조위의 침몰을 막고자 다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나 혼자 명절을 기쁘게 누리기 보다..."

20일간의 단식 끝에 야3당의 의지를 확인한 세월호 가족들은 무기한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는 이석대 특조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이 특조위 강제해산을 막고자 릴레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 시민단체와 일반인들의 지지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5일부터 단식 중인 4.16연대 김우 상임운영위원은 "나 혼자 명절을 기쁘게 누리기보다 이곳에서 광장을 지키는 게 의미가 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명절 연휴기간에 매일 농성장에서 단식을 진행한 이현우 목사(대연교회)는 "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강제종료시키려는 정부에 분개해 지지단식에 나오게 됐다"고 성토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귀향객들로 붐비는 서울역에서 영석이 엄마 권미화씨가 노란 세월호 기억팔찌를 나눠주며 미소 띤 얼굴로 명절 인사를 건넵니다. 걸음을 재촉하며 이내 외면하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입술에 힘을 주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쩌다가던 길을 멈추고 손 내미는 시민을 만나면 어느새 얼굴에 화색이 번집니다.

외동 아들 없이 맞게 된 세 번째 추석.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설레임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차갑게 식은 아이를 가슴에 품었던 엄마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엄마 키만큼 훌쩍 자란 아들, 엄마가 좋아하는 매운 고추를 넣어 삼겹살 쌈을 싸주고, “세상에서 어머니가 최고야. 어머니를 못 만났으면 어떻게 하지...”하고 예쁘게 말하던 아들, 이제 엄마는 그 아들을 만나러 가도 아들 대신 국화꽃에 얼굴을 묻어야 합니다.

2년 반이 되도록 아직 왜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몸이 편안한 날은 아들 생각에 숨 쉬는 것마저 미안하고 가슴이 아픈 엄마는, 명절에도 성치않은 몸을 이끌고 서울역으로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그 날의 진실을 밝혀야, 세월호를 교훈 삼아 더 이상 같은 일을 겪지 않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서울역은 계속 가족을 만나는 설레임과 행복한 추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라 세사모 회원들이 찾은 세월호 현장

필라 세사모 회원인 정형량 변호사와 권오달씨는 지난 여름 각각 비즈니스, 개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광화문 세월호 광장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지지의 메시지를 전했다.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강제종료에 항의하며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광화문 인근에는 제대로 된 나무도 없어 뜨거운 햇볕아래 그대로 노출된 채 고군분투하는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형량 변호사가 유가족들을 방문한 날은, 유가족들이 택시에서 내리려는 은박깔개를 경찰관이 탈취해 도망가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었다. 유가족들은 “경찰이 도둑이나”고 항의하고 또 “이렇게 투철하게 애들 좀 살리지”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해외에서 찾아 온 정변호사에게 음료수를 권하며 반가워했다고 한다. 동포들과 나누라며 노란 세월호 팔찌가 한가득 담긴 상자도 전했다.

권오달씨가 광화문을 방문한 7월 말에는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특조위 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농성장 바로 옆에 늘 어선 경찰버스들은 에어컨 때문인지 계속 시동을 켜 놓고 있었다.

“광화문 농성장 옆 분수대에서 한가로이 노는 아이들과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중국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유가족들의 고독한 싸움이 느껴져 안타까웠습니다.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정부와 언론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심신이 지친 유가족들이 도보행진이나 단식 등과 같이 힘든 길을 지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음에는 유가족들에게 뭐라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가 이어 방문한 안산 합동분향소는 넓은 광장에 참사 직후 설치했던 컨테이너 박스들만 즐비한 채 을씨년스럽기까지 했다고 한다. 방문객도 눈에 띄게 줄었고, 2년이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낡은 상태였다.

“공원 주위에 있는 현수막들이라도 새 것으로 바꿔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빈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미국에서 왔다’며 일일이 유족들을 소개시켜 주셔서 여러 부모님께 인사 드리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중이라 반별로 돌아가며 분향소를 지킨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상중’이라는 말이 귀에 꽂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빨리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고, 사고 원인이 규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과 안산의 세월호 현장에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난 두 사람은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 유족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이 메었다”, “세월호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초인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평상시에는 지쳐있는 모습들을 보니 안쓰러웠다”며, 가능하면 많은 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힘을 실어주길 바랐다.

선체훼손 심각, 연내 인양은?

해양수산부는 8월초 선미 리프팅 빔 설치 완료하겠다고 당초 계획과는 달리, 현재까지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어 세월호 인양계획이 한달 넘게 지체되고 있다. 지난 6월에 해수부가 제출한 '세월호 인양일정 세부계획서'에 따르면 선미 리프팅 빔을 설치하고도 인양의 최종단계인 육상 거치까지는 두 달 반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약 선미 빔 작업이 늦어지면 겨울 계절풍의 영향으로 연내 인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체 훼손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권영빈 특조위원은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에 천공을 113개나 뚫어놓은 상태인데, 선체 하부 탱크부분에 추가로 34개를 뚫겠다고 한다"며, 심각한 선체훼손과 의도적인 지연행위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9일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후 객실부분만 절단해 실종자를 수습하는 방침을 확정하는 등, 진실규명보다는 증거인멸에 더 열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 반대로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안' 상정 무산

새누리당은 지난 9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안전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정위에 회부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상임위 논의가 멈춰지게 되어, 이번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5월 발의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하고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개정안 상정이 무산됨으로써, 특조위는 9월말 강제해산 위기에 처했다. 한편,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원들은 강제종료가 되더라도 조사활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3차 청문회 주요 조사내용

세월호 3차 청문회가 지난 9월 1~2일 이틀동안 김대중도서관에서 진행되었다. 정부측 증인들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 종료를 주장하며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히 사고 당시 해경 경비안 전국장, 해군 해난구조대장, 세월호 1등항해사, 청해진 해운물류팀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여, 조사권만으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그 동안의 증인 심문과 국회 발언, 검찰 및 특조위 조사기록을 토대로 참사 당시를 재구성해 여러가지 의미있는 진실을 밝혀냈다.

식당 칸 공기주입은 거짓말, TRS 기록으로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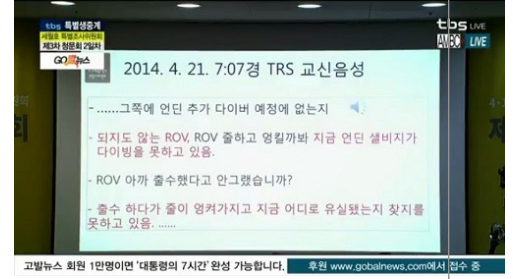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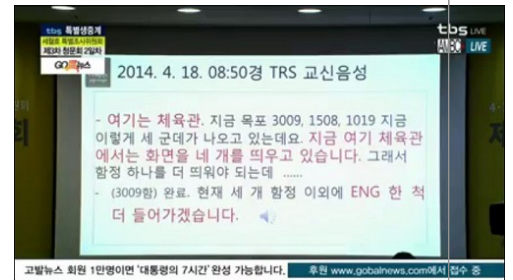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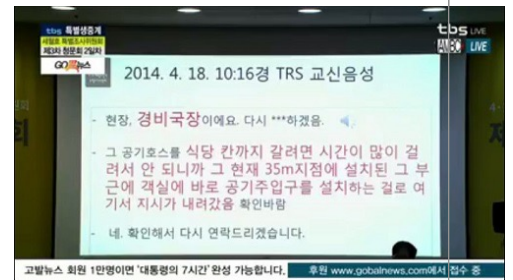
특조위가 공개한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 공용통신) 음성파일 분석에 따르면, 해경이 세월호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조타실 근처로 추정되는 곳에 19mm호스와 소형 공업용 콤프레서로 공기를 주입하는 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4월 19일 08시 50분과 09시 14분경 사이에 이루어진 교신을 보면, "72시간"의 구조 골든타임에 1000톤급이상 함정 4척을 동원해 위성영상을 전송하기위해 분주히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떠들썩하게 발표한 ROV(수중탐사로봇)의 선내진입 성공 발표도 실제 상황과 달랐다. 선내에 진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줄이 엉킬 위험 때문에 오히려 다이빙만 방해한 셈이 되었다. 2대 중 1대는 유실되고, 1대만 25분간 잠수했으며, 선내진입은 못한 채 출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라진 CCTV 기록들

2014년 6월,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 선내에서 CCTV 저장장치(DVR)를 찾았으나, 이 사실을 세월호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복원한 영상에는 참사 당일 오전 8시 48분까지의 기록만 남아있는데, 참사 생존자 강병기씨는 안내데스크의 CCTV화면을 9시 30분경까지 보았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도 배가 기울어진 뒤에도 CCTV가 켜져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상복원 전문가 황민구 범영상분석연구소 대표는 '영상 삭제나 편집 가능성이 있다'라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3차 청문회에서 공개된 TRS 교신음성

세월호 참사 아픔 담은 공연 SaltSoul, 10월 6~8일 AAI에서



김정웅 안무가가 이끄는 한미 공연예술가 팀의 공연 <솔트소울>(SaltSoul)이 오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센터시티 아시안 아트 이니셔티브(Asian Arts Initiative, AAI)에 올려진다. 설치예술과 공연예술이 결합된 이번 작품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상실의 경험을 예술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끄집어 내어 함께 아픔을 나누고 치유를 모색하는 시도이다. 공연은 AAI 건물 밖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소리와 조명 작업이 설치된 실내로 이어진다. '기원'부분은 무료, 실내 입장료는 \$15~\$20. (문의: 215.557.0405)

광고주를 모십니다.

필라세사모의 <세월호 소식나눔>지는 매월 둘째 주말에 1,000부씩 발행, 배포됩니다. 지역 매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월호 소식과 진상규명 현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발행을 위해, 뜻있는 후원자/단체, 사업체들의 광고를 심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립니다.

참여와 후원, 광고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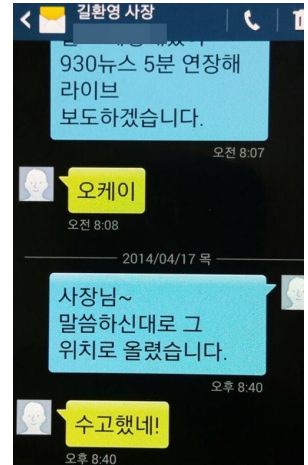
필라세사모 활동에 대한 후원이나 참여, 소식지 광고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주십시오.

- 이메일: philasewol@gmail.com
- 전화: 267-475-7132, 814-777-4379
- Paypal: philasewol@gmail.com
- www.facebook.com/philasesamo

세월호 3차 청문회 주요 조사내용

세월호 보도개입,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추가 폭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새누리당 대표)의 KBS 보도개입 녹취록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1일 청문회에 출석해 김환영 전 KBS 사장의 보도개입을 보여주는 문자메시지를 추가 폭로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아이템의 보도 순서를 정함에 있어 KBS 사장과 보도국장이 서로 논의를 한 것인데, 이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위반이다. 김 전 국장은 참사 직후인 4월 17일 박대통령 아이템과 관련하여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에 올렸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김 전 국장은 “수고했네”라고 답했다. 현행 방송법상 보도개입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공개한 김환영 전 사장과 문자메시지

경찰, 피해자 지원보다 동향 파악에 주력

경찰이 피해자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주하면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기록도 나왔다. 특조위가 2일 오전 청문회에서 공개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 의하면 “(가족대표 구성) 가족대표 13명(학부모, 일반, 교사)이 구성되었으며, 이 중 밀양송전탑 강성 시위전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 “향후 보상 등 협사에서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4월 22일에 작성된 경찰청 문건에 의하면 “사망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직간접 접촉선 확보 및 강성 단체, 불순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나온다. 유가족들도 경찰의 역할이 보호가 아닌 감시였다고 증언하였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가족 권미화씨는 “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찰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3차 청문회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작성한 유가족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고 있다.